

# 외식산업프랜차이즈본사의 재무구조, 수익성, 성장성 및 재무위험에 관한 연구

최황택\*\*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상의 재무자료(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를 사용하여 프랜차이즈본사의 자산규모, 재무구조, 수익성 및 성장성에 관한 정보를 연구하였다. 분석 자료는 패스트푸드, 가족식당, 제빵, 농수산물과 주류산업의 1,050개 프랜차이즈 본사의 2011년과 2012년 자료를 수집되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자산규모에서는 중위수가 675백만 원이었고 중위수까지의 회사의 누적 수는 49.9%에 이르렀으나, 자산규모의 총 누적율은 0.48%에 불과하여 규모의 영세성을 나타내었다. 재무구조에서는 525개사(50%)의 회사가 부채비율이 200% 이하였고, 314개사(29.9%)가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었으며, 211개사(20.1%)가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구조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수익성에서는 ROA의 중위수가 4.72%에 불과하여 낮은 성장성을 나타내었다. 성장성에서는 매년 매출성장률의 중위수가 7.5%를 나타내어, 프랜차이즈산업이 성숙기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전반적으로 외식관련 프랜차이즈 본사의 재무상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주제어: 가맹사업, 자산크기, 재무구조, 수익성, 성장률

\*\*\*\*\*

## I. 서 론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크기가 크게 증가하였다(British Franchise Association, 2011; Frazer et al., 2012; Weaven et al., 2010).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지가 특정 기간 동안 지정된 위치에서 프랜차이즈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프랜차이즈에게 돈을 지불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두 기업 간의 계약상의 협정이라고 정의한다(Lafontaine and Shaw, 1999). Business

\* 세종사이버대학교 회계세무학과 조교수 (e-mail: 12bhag@naver.com)

Week는 프랜차이즈는 독립적인 자영업자보다 네 배 이상 성공할 기회가 높다(Bates, 1995)고 언급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산업은 가맹본부의 상표 등 영업표지와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한 노하우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처음 시작하려는 자영업자들에게 안전한 투자수단으로 인식 되고 있다.

대부분의 비즈니스 환경의 특징인 불완전한 정보와 불확실성의 조건 하에서, 불리한 선택, 도덕적 해이, 터무니없는 값의 요구 등 적어도 세 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중 불리한 선택은 에이전트가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그의 업무에 대한 수행 능력을 나타내지 않거나 주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Shane, 1998).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는 두 개의 독립적인 기업 간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완전한 정보와 불확실성의 조건으로 인하여 가맹계약의 체결과정에서 부실한 가맹본부나 사기성 가맹본부로부터 가맹희망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맹계약의 체결 이후, 가맹계약의 이행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맹계약 상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가맹희망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2년 ‘가맹사업법’이 법률 제6704호로 공포되었으며, 아울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맹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4). 특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8.13.>)’고 함으로써 가맹희망자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일반인들이 확인하고 가맹본부에 대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과연 가맹을 하려고 하는 가맹본부의 상황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가에 대하여 가맹희망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맹희망자들이 가맹을 희망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게재된 정보공개서를 바탕으로 가맹본사의 3개년 간의 재무상황에 관한 공개서에 공개된, 년도 별 6가지 회계변수(총자산, 총자본, 총부채, 총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가맹사업자가 가맹본사의 재무 상태에 관한 정보를 산출하여 가맹사업자의 가맹본사에 대한 가입, 계약의 지속, 운영상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가맹본사에게는 가맹사업자가 요구하는 가맹본사의 재무상태에 관한 개선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Ⅱ. 이론적 배경

### 1. 정보공개제도

프랜차이즈 협정은 법적으로 독립된 두 기업 간의 계약이다. 이러한 계약의 전제는 한 쪽의 상표 및 제품, 서비스에 대한 사용 및 판매권한을 구매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제공을 전체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는 소통의 당사자들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뿐만 아니라 정확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발생되며(Gassenheimer et al., 1996), 때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마땅히 지켜야할 노력을 부적절하게 수행함으로써 발생한다(Dant, 1995). 또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제공된 정보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정보는 계약의 체결단계에서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중요정보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특히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가맹계약의 체결단계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보력 등 측면에서 가맹희망자보다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속성을 갖고 있으므로 가맹희망자를 위한 정보공개의 필요가 있다(김후중, 2008).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주의 깊게 읽고 이해하는 것은 모든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지불하기 전에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 중의 하나이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법에서는 정보공개서(제4조 제1항 관련)의 기재사항으로 1) 정보공개서의 표지, 2)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3)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4)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5)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7)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8)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9)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여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중 재무와 관련된 사항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중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에 관한 다음의 정보인 1) 연도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다만, 가맹본부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의 증명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2) 연도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영업표지별로 나누어 기재하되, 분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합계를 기재할 수 있다. 또한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추정된 매출액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표시한다)과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국가들이 프랜차이즈 기업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랜차이즈 관련법은 크게 정보공개법, 관계에 관한 법, 정보공개와 관계에 관한

법의 3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표 1> 참조).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정보공개와 관계에 관한 법률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표 1〉 프랜차이즈 정보공개법 및 관계 법률

대륙	정보공개법	관계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서 & 관계에 관한 법률
아시아	대만		한국, 중국, 일본, 마카오, 베트남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유럽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라트비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조지아, 몰도바
북미	브라질, 미국(연방법)	베네수엘라	캐나다(온타리오, 앨버타, 마니토바, 뉴 브런스윅, 프린스 에드워드 섬), 멕시코, 미국(몇개주)
아프리카		앙골라	남아프리카공화국, 튀지지

출처 : DLA Piper, Laws Applicable to Franchising(February 2014)

정보공개서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대부분 법률과 관련된 연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Rudnick & Ginsburg, 1974; Drahozal, 2014; Spandorf & Tremaine, 2014; Stadfeld, 1979; Lowell, 1992; Peters, 2000; Pitegoff, 1989; Peters, 2000; Peters, 2004; Meiklejohn, 2008),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들(Adler & Laidhold, 2010; Wright & Winzar, 2014)이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관련 연구로는 대부분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과 가맹점의 재계약의도에 관한 연구, 프랜차이즈 시스템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및 입지특성과 매출액 간의 관계, 프랜차이즈 평가지표 기준에 관한 연구 등이 연구되었으며,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와 관련된 연구로는 이은지, 조철호(2013)의 연구가 유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구를 통하여 예비가맹사업자가 창업을 준비할 때 프랜차이즈가 성공할 수 있는 가맹본부를 선별할 수 있는 기준 및 사업의 위험요소 감소와 성공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2. 재무분석 이론

한길석(1995)은 재무 분석가의 위험인식에 대한 일반적인 성향을 조사 분석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시장모형을 토대로 추가자료를 활용하여 측정된 시장베타와 설문지에 의한 재무 분석가들의 위험인식 조사 및 공시된 재무제표를 통하여 산출된 회계변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재무 분석가의 위험인식에 대한 측면과 자본시장에서의 유용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장베타에 대하여는 의사결정시에 이용하지 않았으며, 위험개념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최우선적으로 파산가능성 측면에 입각하여 위험을 인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회계변수들은 재무 분석가의 위험인식측면에서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Altman(1968)은 기업의 부실을 예측하기 위하여 z-score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미국에서 1946년과 1965년도 사이에 도산한 33개 기업과 33개 건전기업을 표본으로 이용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고, 판별함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유동성, 수익성, 레버리지, 활동성 등의 범주별로 대표적인 비율을 한 개씩 사용하였다.

Altman, Haldeman, & Narayanan(1977)은 부실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zeta 모형을 개발하였는데, 1969년과 1975년 사이에 53개 도산기업과 58개 건전기업을 이용하여 판별모형을 추정하였는데, 투자이익률, 이익률의 안전성, 이자지급능력, 누적 수익성, 유동성, 자본구조, 기업규모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Altman, Eom, & Kim(1994)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1989년과 1992년 사이에 34개 부실기업과 61개의 건전기업을 이용하여 K-1과 K-2 모형을 제시하고, 총자산, 총자산회전율, ROA, 부채비율의 역수, 부채대비 자기자본 가치비율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Ohlson(1980)은 로짓모형을 기업부실 예측에 사용하였는데, 1970년과 1976년 사이에 105개 도산기업과 2,058개의 건전기업을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총자산, 총자산대비부채비율, 총자산 대비 운전자본비율, 유동비율의 역수, ROA, 총부채대비 영업활동현금흐름비율, 과거2년 간 적자여부, 순이익증가율의 9개 변수를 사용하였다. 이계원(1993)은 1985년과 1992년 사이에 41개 도산기업과 123개 건전기업을 이용하여 도산예측모형을 추정하고,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자기자본비율, 현금흐름비율, 비기대 재고자산비율, 기업규모의 6개변수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를 고려하고, 이용가능한 정보공개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6가지의 2개년치의 회계변수를 이용하여, 규모변수, 재무구조에 관한 회계변수, 수익성에 관한 회계변수, 성장성에 관한 회계변수를 산출하고 그 지표의 특성을 분석하여 프랜차이즈본사의 산업분류내의 특성을 파악하여 프랜차이즈사업자와 프랜차이즈예비창업자에게 가맹점본사와 신규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기존계약을 계속할 것인지, 기존의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기술한 재무위험에 관한 연구와는 달리, 정보공개서의 재무상황에 대한 연구들은 정보

공개서의 법적의무화가 일천한 탓인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프랜차이즈본사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은 가맹사업자의 계약체결, 유지, 해약에 대하여 기존의 정성적이고 설문 에 의한 정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다.

### Ⅲ.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본사의 현황과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는 2014년 2월 현재 19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가맹브랜드의 수는 3,867개의 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며. 그 현황은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되었다.

<표 2> 프랜차이즈브랜드 수 및 프랜차이즈본사업체 수

번호	업종	브랜드수(개)	비율(%)	기업체수(개)	비율(%)	업체 당 평균 브랜드 수
1	패스트푸드	151	3.81	101	4.70	1.50
2	주류	146	3.78	41	1.91	3.56
3	기타외식	2,373	61.37	1,226	57.05	1.94
4	제과/제빵	107	2.77	64	2.98	1.67
5	편의점	33	1.15	21	0.98	1.57
6	농수산	25	0.65	16	0.74	1.56
7	건강식품	19	0.49	15	0.70	1.27
8	의류패션	25	0.65	18	0.84	1.39
9	화장품	25	0.65	23	1.07	1.09
10	기타도소매	206	5.33	137	6.38	1.50
11	교육서비스	304	7.86	206	9.59	1.48
12	자동차관련	44	1.14	32	1.49	1.38
13	이미용	97	2.51	70	3.26	1.39
14	스포츠	16	0.41	9	0.42	1.78

번호	업종	브랜드수(개)	비율(%)	기업체수(개)	비율(%)	업체 당 평균 브랜드 수
15	배달서비스	8	0.21	4	0.19	2.00
16	유아관련	40	1.03	19	0.88	2.11
17	컴퓨터관련	23	0.59	15	0.70	1.53
18	유지관리서비스	9	0.23	4	0.19	2.25
19	기타서비스	225	5.82	128	5.96	1.76
계	전체	3,867	100.00	2,149	100.00	1.80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연구의 자료로 사용한 정보공개서는 2014년 2월 현재 2013년의 결산자료를 올리지 않은 상태로 인하여 본 연구에는 2012년도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2012년도 현재 가맹본부의 수는 2,149개, 가맹브랜드는 3,867개, 가맹점은 176,788개로 조사되었으며, 한 가맹본부가 평균 1.8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된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식음료업 가맹본부로 분류할 수 있는 기타외식, 패스트푸드, 주류, 제과제빵, 농수산 부문이 1,448개 업체로 67.3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브랜드의 순으로는 2802개 브랜드로 전체 브랜드 수의 72.3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IV. 표본기업의 선정

정보공개서에 공시되어 있는 재무관련 자료로는 총자산, 총자본, 총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6가지 회계변수가 공개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맹희망자들이 가맹본사의 재무상황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연도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수,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변동현황, 가맹사업자의 지역별 평균매출액, 광고, 판촉비 지출액, 가맹사업관련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금, 등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며, 대부분의 재무자료가 브랜드별로 구분되지 않고 기업별로 공개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프랜차이즈 업종 중 본 연구에서는 <표 3>에서와 같이 식음료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 주류, 기타외식, 제과/제빵과 농수산업종에 속하는 1,448업체

가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이 중 신규업체로 공시자료를 등록할 수 없거나, 자료의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2012년과 2011년 자료가 모두 공시되지 않은 기업체인 398개 업체를 제외한 1,050개(72.5%)의 업체가 표본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표 3〉 업종별 기업체 수와 구성비

업종	업체 수	구성비
패스트푸드	85	8.10(%)
주류	27	2.57(%)
제과/제빵	49	4.67(%)
농수산	14	1.33(%)
기타외식	875	83.33(%)
계	1,050	100.0(%)

## V. 연구결과

### 1. 자산 규모에 관한 연구

자산이란 자본과 부채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운영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규모 및 기업 재무현황 평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Altman(1994)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한 도산예측모델에서 기업규모, 총자산회전율, 누적수익성, 재무구조의 4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k-score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이계원(1993)은 한국기업의 도산예측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자기자본비율이 작을수록, 현금비율이 낮을수록, 매출액증가율을 초과하여 재고자산이 증가할수록,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도산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총자산 규모가 기업의 부실여부를 판정하는데 중요한 변수의 하나로 확인되었다.

프랜차이즈본사의 총자산에 대한 연구 결과 5개 산업의 총자산의 평균은 25,929백만 원이고, 중앙값은 675백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평균과 중앙값의 차가 심하게 다르게 나타난 결과는 자산규모 100억 이상의 기업체수는 97개로 전체 기업체 1,050개 중 9.24%에 불과한 반면, 이들 기업의 자산규모는 전체 식음료 프랜차이즈 업체의 95.63%인 26조 36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며, 이는 대기업의 진출로 인하여 자산규모의 편중현상이 평균 자산의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 참조).



대기업과는 달리 자산규모 1억 미만기업의 경우 전체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의 13.43%인 141개사로 조사되었으며, 이들의 자산규모는 전체의 0.03%에 불과하였다. 자산규모 1억 이상, 6.75억 원 미만(전체기업의 메디안) 기업은 36.57%인 384개 기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의 자산규모는 전체 0.4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식음료 프랜차이즈 기업의 50%가 자산규모 6.75억 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프랜차이즈 기업의 반 이상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영세한 자산규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타외식의 경우 13.7%가 1억 원 미만의 자산을 신고하여 1억 미만 자산규모를 가지고 있는 가맹본부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패스트푸드의 총자산 평균은 52,402백만 원이고, 메디안은 665백만 원이었으며, 주류의 총자산은 평균이 2,509백만 원, 중앙값이 350백만 원, 제과/제빵의 총자산 평균은 80,462백만 원, 중앙값은 934백만 원이었으며, 농수산의 총자산 평균은 47,517백만 원, 중앙값은 1,270백만 원이었으며, 기타외식의 총자산 평균은 20,682백만 원, 중앙값은 651백만 원이었다.

〈표 4〉 자산규모에 따른 분류

업종	회사합계	평균자산 (백만원)	자산 메디안 (백만원)	자산규모에 따른 회사의수					
				1억 미만	1억~6.75 억 미만	6.76~10 억 미만	10~50억 미만	50~100 억 미만	100억 이상
패스트푸드	85	52,402	665	8	35	5	16	7	14
주류	27	2,509	350	7	9	3	4	1	3
제과/제빵	49	80,462	934	6	12	8	15	2	6
농수산	14	47,517	1,270	0	5	2	4	1	2
기타외식	875	20,682	651	120	323	77	239	44	72
계	1,050	25,930	675	141	384	95	278	55	97
구성비	100.0%			13.43%	36.57%	9.05%	26.48%	5.24%	9.24%
자산 규모 및 비율 (단위: 백만원)	27,226,461 (100%)			7,179 (0.03%)	120,793 (0.44%)	78,418 (0.29%)	590,869 (2.17%)	392,282 (1.44%)	26,036,920 (95.63%)

위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자산규모의 중앙값인 6.75억 원은 자산의 특성인 자본과 부채의 합으로 볼 때, 프랜차이즈 본사의 50%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영세성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설립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 없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일반인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재무구조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가맹본부의 재무 건전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표 5>에서와 같이, 먼저 가맹본부의 자본구조, 자기자본 비율을 통하여 자기자본 잠식현황을 분석하였다. 업종별 자본잠식현황을 살펴보면, 제과/제빵이 34.69%로 자본잠식 기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주류(25.93%), 패스트푸드(20.00%), 기타외식(19.31%), 농수산(7.14%)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외식업 평균은 20.10%로 조사되었다.

<표 5> 표본기업의 자본잠식에 따른 분류

업종	자본잠식 기업체 수	자본잠식이 없는 기업체 수	업종별 기업체 수	업종별 자본잠식율
패스트푸드	17개	68개	85개	20.00(%)
주류	7개	20개	27개	25.93(%)
제과/제빵	17개	32개	49개	34.69(%)
농수산	1개	13개	14개	7.14(%)
기타외식	169개	706개	875개	19.31(%)
계	211개	839개	1,050개	20.10(%)

이러한 조사 결과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기업의 20%에 해당하는 기업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며, 현재에도 가맹점들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다는 것은 가맹사업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가맹희망자들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무구조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구할 수 있는 회계변수는 부채비율과 자기자본비율을 구할 수 있으며, 보편적으로 자기자본비율보다 부채비율을 재무구조의 지표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부채비율을 가지고 재무구조를 분석하고자 하며, 자기자본비율과 부채비율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자기자본비율} = (\text{자기자본} / \text{총자산}) \times 100$$

$$\text{부채비율} = (\text{총부채} / \text{총자본}) \times 100$$

상기 부채비율 공식을 이용하여 5개 업종의 1,050개 기업의 부채비율을 계산하면, <표

6>에서와 같이, 총 부채비율의 평균은 1,247.7%이고 중앙값은 90.49%이다. 총 평균이 1,247.7%로 중앙값인 90.49%보다 훨씬 큰 이유는 부채비율이 높은 회사의 부채 비율 값이 부채비율이 낮은 회사의 값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말하며, 전반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아 재무구조가 취약한 회사가 많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회계와 금융기관에서 기업의 재무구조의 부실여부를 판단하는 200% 규정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200% 이하업체와 부채비율 200% 이상의 업체를 구분하여 재무구조의 양부를 구분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5개 업종의 부채비율 현황표

업종	업체수	부채비율					
		평균	중앙값	100% 미만	100-200% 미만	200% 이상	자본잠식
패스트푸드	85 (8.10%)	11,636.85%	70.82%	33 (38.83%)	5 (5.88%)	30 (35.29%)	17 (20.00%)
주류	27 (2.57%)	-83.09%	36.68%	13 (48.15%)	4 (14.81%)	3 (11.11%)	7 (25.93%)
제과/제빵	49 (4.67%)	462.20%	96.89%	8 (16.33%)	6 (12.24%)	18 (36.74%)	17 (34.69%)
농수산	14 (1.33%)	262.89%	179.86%	3 (21.43%)	4 (28.57%)	6 (42.86%)	1 (7.14%)
기타외식	875 (83.33%)	339.24%	92.25%	280 (32.20%)	169 (19.23%)	257 (29.34%)	169 (19.23%)
계	1,050 (100.0%)	1,247.67%	90.49%	337 (32.10%)	188 (17.90%)	314 (29.90%)	211 (20.10%)

부채비율은 패스트푸드업계에서 200%미만의 부채비율이 낮은 회사의 수는 38개사(44.71%), 200% 이상의 부채비율의 회사는 30개사(35.29%), 자본잠식회사는 17개사(20%)이므로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회사의 총수는 47개사(55.29%)이다. 주류업계에서 200% 미만의 부채비율이 낮은 회사의 수는 17개사(62.96%), 200% 이상의 부채비율회사는 3개사(11.11%), 자본잠식회사는 7개사(25.93%)이므로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중인 회사의 총 수는 10개사(37.04%)로 조사되었다. 제과/제빵업계에서는 200% 미만의 부채비율이 낮은 회사의 수는 14개사(28.57%)에 불과하였으며, 200% 이상의 부채비율 회사는 18개사(36.74%), 자본잠식회사는 17개사(34.69%)이므로 재무구조가 불량한 회사의 총수는 35개사(71.43%)로 5개 업종 중 가장 나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수산업계에서는 200% 미만의 부채비율이 낮은 회사의 수는 7개사(50%)이고, 200% 이상의 부채비율회사는 6개사(42.86%), 자본잠식회사는 1개사(7.14%)이므로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중인 회사는 총 7개사(50%)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기타외식업계에서는 200% 미만의 부채비율이 낮은 회사의 수는 449개사(51.43%)이며, 200%이상의 부채비율회사는 257개사(29.34%), 자본잠식회사는 169개사(19.23%)이므로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중인 회사의 총수는 427개사(48.57%)로 조사되었다.

한편, 5개 업종 전체를 살펴 보면, 부채비율이 200% 미만의 부채비율이 낮으며, 재무구조가 양호한 회사는 525개사(50.00%), 200%이상의 부채비율 회사는 314개사(29.90%), 자본잠식회사는 211개사(20.10%)이므로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중인회사의 총수는 525개사(50.00%)로 조사되어 조사대상 기업의 절반이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3. 수익성에 관한 연구

정보공개서에 공시된 6개의 회계변수를 사용하여 수익성에 관한 지표를 계산해보면, 자기자본이익률(ROE), 총자산이익률(ROA), 매출액영업이익률 및 매출액순이익률을 구할 수 있으며 각각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ROE: 당기순이익/자기자본 × 100

ROA: 당기순이익/총자산 × 100

매출액영업이익률: 영업이익/매출액 × 100

매출액순이익률: 당기순이익/매출액 × 100

상기 네 가지의 지표 중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매출액순이익률은 매출에 대한 마진을 나타내고 있으나, 투하자본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으며, ROE는 자본잠식기업이 211개(전체표본의 20.10%)에 달하여 자본잠식기업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총자산대비 당기순이익의 비율인 ROA를 사용하여 <표 7>에서와 같이 수익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ROA의 판단에 대한 기준은 업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업종을 고려하여 2012년도 5개 업종 1,050개 기업의 ROA의 중앙값인 4.72%를 기준으로 하여 4.72% 이상의 기업은 수익성이 좋은 기업으로 분류하고, 그 이하는 수익성이 좋지 않은 기업으로 분류하였다. 업종별로 구분해 보면, 패스트푸드에서는 ROA가 적자인 회사는 23개사(27.06%), 4.72% 미만인 회사는 23개사(27.06%), ROA가 적자이거나 4.72% 미만인 회사의 수는 46개사

(54.12%), ROA가 4.72% 이상인 양호한 회사는 39개사(45.88%)로 나타났다.

주류업종에서는 ROA가 적자인 회사는 7개사(25.93%), 4.72% 미만인 회사는 3개사(11.11%)이므로 ROA가 적자이거나 4.72% 미만인 회사의 수는 10개사(37.03%), ROA가 4.72% 이상으로 양호한 회사는 17개사(62.97%)로 조사 되었다. 제과/제빵업종에서는 ROA가 적자인 회사는 16개사(32.65%), 4.72% 미만인 회사는 19개사(38.78%)이므로 ROA가 적자이거나 4.72% 미만인 회사의 수는 35개사(71.43%)이고, ROA가 4.72%이상으로 양호한 회사는 14개사(28.57%)로 조사되었다. 농수산업종에서는 ROA가 적자인 회사는 4개사(28.57%)이며, 4.72% 미만인 회사가 7개사(50.00%)이므로 ROA가 적자이거나 4.72%미만인 회사의 수는 11개사(78.57%), ROA가 4.72% 이상인 양호한 회사는 3개사(21.43%)로 조사되었다. 기타외식업종에서는 ROA가 적자인 회사가 237개사(27.09%), 4.72% 미만인 회사가 186개사(21.26%)로 ROA가 적자이거나 4.72% 미만인 회사의 수는 423개사(48.35%)이며 ROA가 4.72% 이상인 양호한 회사는 452개사(51.66%)로 조사되었다.

〈표 7〉 5개 업종의 수익성 표

업종	회사합계	ROA 평균	ROA 중앙값	ROA 적자	ROA 4.72% 미만	ROA 4.72% 이상
패스트푸드	85 (8.10%)	0.49%	4.07%	23 (27.06%)	23 (27.06%)	39 (45.88%)
주류	27 (2.57%)	-7.45%	12.55%	7 (25.93%)	3 (11.11%)	17 (62.96%)
제과/제빵	49 (4.67%)	24.71%	2.32%	16 (32.65%)	19 (38.79%)	14 (28.57%)
농수산	14 (1.33%)	16.41%	1.14%	4 (28.57%)	7 (50.00%)	3 (21.43%)
기타외식	875 (83.33%)	61.15%	5.29%	237 (27.09%)	186 (21.26%)	452 (51.66%)
계	1,050 (100%)	51.74	4.72	287 (27.33%)	238 (22.67%)	525 (50.00%)

5개 업종 전체에서는 ROA가 적자인 회사는 287개사(27.33%), 4.72% 미만인 회사는 238개사(22.67%)로 ROA가 적자이거나 4.72% 미만인 회사의 수는 525개사(50.00%)이며, ROA가 4.72% 이상인 양호한 회사는 525개사(50.00%)로 조사되었다. 5개 업종의 ROA의 중앙값인 4.72%는 일반적인 기업들의 회계기준을 적용한 타 업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되며, 적자기업과 ROA가 중앙값보다 낮은 기업의 수가 525개 기업

(50.00%)에 이르는 것은 프랜차이즈본사의 재무위험을 위협하는 요소로 판단된다. 특히, 농수산업종의 경우 적자이거나 ROA가 낮은 기업의 비율이 78.57%에 달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판단되었다.

#### 4. 성장성에 관한 연구

정보공개서에 공개된 회계변수를 사용하여 수익성 지표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총자산증가율, 자기자본 증가율과 매출액증가율을 구할 수 가 있으며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총자산증가율 : (2012년 총자산-2011년 총자산) / 2011년 총자산 × 100

자기자본증가율 : (2012년 자기자본-2011년 자기자본) / 2011년 자기자본 × 100

매출액증가율 : (2012년 매출-2011년 매출) / 2011년 매출 × 100

총자산증가율이나 자기자본증가율은 자본 확충을 고려한 증가율이나 영업의 확장성을 고려해 보면, 매출액증가율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매출액증가율로 성장성을 판단하였으며, 성장성은 업종에 따라 달라지지만 5개 업종의 성장성 메디안인 7.57%를 적용하여 그 이상은 성장률을 높은 것으로 판정하고 그 이하는 나쁨으로 판단하였다(<표 8> 참조).

이를 기준으로 패스트푸드업종에서는 매출증가율이 적자인 회사는 38개사(44.7%), 7.57% 미만인 회사는 4개사(4.71%)로 매출증가율이 적자이거나 7.57%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한 회사의 수는 42개사(49.41%)이며, 매출증가율이 전년대비 7.57% 이상 성장한 회사의 수는 43개사(50.59%)로 조사되었다. 주류업종은 매출증가율이 적자인 회사가 13개사(48.15%), 7.57%미만인 회사가 2개사(7.41%)로 매출증가율이 적자이거나 7.57% 미만 성장률을 기록한 회사의 수는 15개사(55.56%)이며, 전년대비 7.57% 이상 성장한 회사의 총수는 12개사(44.44%)로 조사되었다. 제과/제빵업종에서는 매출증가율이 적자인 회사는 16개사(32.65%), 7.57%미만인 회사가 4개사(8.16%)이며, 매출증가율이 적자이거나 7.57%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한 회사의 수는 20개사(40.81%)이고, 매출증가율이 전년 대비 7.57% 이상 성장한 회사의 총수는 29개사(59.19%)로 조사되었다. 농수산업종에서는 매출증가율이 적자인 회사가 6개사(42.85%), 7.57%미만인 회사가 2개사(14.29%)로 매출증가율이 적자이거나 7.57%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한 회사의 수가 8개사(57.14%)이며, 매출증가율이 전년대비 7.57% 이상 성장률을 기록한 회사의 수는 6개사(42.86%)로 나타났다. 기타외식업종에서는 매출증가율이 적자인 회사가 356개사(40.68%), 7.57% 미만인 회사가 83개사(9.49%)로 매출증가율이 적자이거나 7.57%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한 회

사의 수는 439개사(50.17%)이고, 매출증가율이 전년 대비 7.57% 이상 성장한 회사의 총수는 436개사(49.83%)로 조사되었다.

5개 업종 전체로 보면, 매출증가율이 적자인 회사는 429개사(40.86%), 7.57% 미만인 회사는 95개사(9.05%)로, 매출증가율이 적자이거나 7.57%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한 회사의 수는 총524개사(49.90%)로 조사되었으며, 매출증가율이 전년 대비 7.57% 이상 성장한 회사의 총수는 526개사(50.10%)로 조사되었다. 매출 증가율의 메디안이 7.57%로 매우 낮은 편이고, 매출증가율이 적자인 업체가 429개사(40.86%)에 이르고 있어 업종 전체로는 성숙산업의 특성을 나타내어 매출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5개 업종의 성장성 표

업종	회사합계	매출증가율 평균	매출증가율 중앙값	매출증가율 적자	매출증가율 7.57% 미만	매출증가율 7.57% 이상
패스트푸드	85 (8.10%)	233.04%	9.71%	38 (44.70%)	4 (4.71%)	43 (50.59%)
주류	27 (2.57%)	164.53%	1.09%	13 (48.15%)	2 (7.41%)	12 (44.44%)
제과/제빵	49 (4.67%)	179.27%	22.31%	16 (32.65%)	4 (8.16%)	29 (59.18%)
농수산	14 (1.33%)	1267.14%	6.29%	6 (42.85%)	2 (14.29%)	6 (42.86%)
기타외식	875 (83.33%)	767.61%	7.20%	356 (40.68%)	83 (9.49%)	436 (49.83%)
계	1,050 (100%)	690.99%	7.57%	429 (40.86%)	95 (9.05%)	526 (50.10%)

## 5. 종합적인 재무위험에 관한 연구

기업규모, 재무구조, 수익성 및 성장성에 관한 지표는 각각 독립적으로도 의미하는 바가 있어 프랜차이즈본사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지표이나 이들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한 지표는 종합적인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되며, 네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종합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분석 결과의 요약

업종	규모	0	0	0	0	0	0	0	0	X	X	X	X	X	X	X	X
	재무	0	0	0	0	X	X	X	X	0	0	0	0	X	X	X	X
	수익	0	0	X	X	0	0	X	X	0	0	X	X	0	0	X	X
	성장	0	X	0	X	0	X	0	X	0	X	0	X	0	X	0	X
패스트푸드	85	8	10	0	2	10	6	5	1	7	8		3	8	5	5	7
주류	27	2	7				2			2	4	1	1	3		4	1
제과/제빵	49	5	3	1		9	5	4	4	3	2			3	3	4	3
농수산	14	3	1			1	2	1	1	1	1		1		1		1
기타외식	875	105	102	6	17	65	77	32	28	102	89	12	16	53	45	60	66
계	1050	123	123	7	19	85	92	42	34	115	104	13	21	67	54	73	78

Note: 규모(좋은: 규0, 나쁨: 규x), 재무구조(좋은: 재0, 나쁨: 재x), 수익성(좋은: 수0, 나쁨: 수x) 및 성장성(좋은: 성0, 나쁨: 성x)

패스트푸드업종에서는 규모, 재무구조, 수익성 및 성장성 지표가 모두 좋은 회사가 8개사(9.41%), 모두 낮은 회사는 7개사(8.24%), 그 중간에는 70개사(82.35%)로 조사되었으며, 주류업종에서는 모두 좋은 회사가 2개사(7.41%), 모두 낮은 회사가 1개사(3.70%), 그 중간에는 24개사(88.89%)로 조사되었다.

제과/제빵업종에서는 모두 좋은 회사가 5개사(10.20%), 모두 낮은 회사가 3개사(6.12%), 그 중간이 41개사(83.68%)로 조사되었으며, 농수산업종에서는 모두 좋은 회사는 3개사(21.43%), 모두 낮은 회사는 1개사(7.14%), 그 중간이 10개사(71.43%)로 조사되었고, 기타 외식업종에서는 모두 좋은 회사가 105개사(12.00%), 모두 낮은 회사가 66개사(7.54%), 그 중간에 704개사(80.46%)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합적으로, 프랜차이즈 식음료산업 본사의 규모, 재무구조, 수익성 및 성장성 지표가 모두 좋은 회사는 123개사(11.71%), 모두 나쁜 회사는 78개사(7.43%), 그 중간에 위치한 회사가 849개사(80.86%)로 조사되었다.



## 6. 직영점 수에 관한 연구

프랜차이즈본사의 정보공개서에서 재무자료 이외의 자료 중 프랜차이즈 본사의 재무위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직영점 수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여 <표10>와 같이 정리하여 표시하였다. 직영점의 수가 본사의 재무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점포운영의 노하우를 가맹점에 전수하기 어려우며, 직영점 운영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개발 기회를 가질 수 없으며, 아울러 직영점이 없을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을 통한 수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인하여 가맹점에 불공정한 거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영업을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경우, 언제든지 가맹본사의 영업을 중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직영점포의 수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운영에 중요한 요소이며, 미국의 경우 직영점의 운영비율이 약 30%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도 직영점의 수가 10개 이상을 반드시 유지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영점수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패스트푸드업종에서 직영점이 없는 회사는 46개사(54.12%), 1개의 직영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11개사(12.94%), 2개에서 10개까지의 직영점을 가진 회사는 17개사(20.00%), 11개 이상 50개까지의 직영점을 가진 회사는 6개사(7.06%), 51개 이상의 직영점을 가진 회사는 5개사(5.88%)로 조사되었으며, 주류업종에서는 직영점이 없는 회사는 22개사( 81.49%), 1개의 직영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표 10> 프랜차이즈본사의 직영점 수

업종	회사합계	평균	중앙값	0개	1개	2-10개	11-50개	51개 이상
패스트푸드	85 (8.10%)	12.5개	0	46 (54.12%)	11 (12.94%)	17 (20.00%)	6 (7.06%)	5 (5.88%)
주류	27 (2.57%)	0.4개	0	22 (81.49%)	4 (14.81%)	1 (3.70%)	0 (0.00%)	0 (0.00%)
제과/제빵	49 (4.67%)	13.5개	1개	21 (42.87%)	7 (14.29%)	15 (30.61%)	3 (6.12%)	3 (6.12%)
농수산물	14 (1.33%)	1.1개	0	11 (78.58%)	1 (7.14%)	1 (7.14%)	1 (7.14%)	0 (0.00%)
기타외식	875 (83.33%)	1.9개	0	531 (60.68%)	161 (18.40%)	151 (17.26%)	28 (3.20%)	4 (0.46%)
계	1,050 (100%)	3.3개	0	631 (60.12%)	184 (17.52%)	185 (17.62%)	38 (3.62%)	12 (1.14%)

4개사(14.81%), 2개에서 10개까지의 직영점을 가진 회사는 1개사(3.70%)로 조사되었다.

제과/제빵업종에서 직영점이 없는 회사는 21개사(42.86%), 1개의 직영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7개사(14.29%), 2개에서 10개까지의 직영점을 가진 회사는 15개사(30.61%), 11개 이상 50개까지의 직영점을 가진 회사는 3개사(6.12%), 51개 이상의 직영점을 가진 회사는 3개사(6.12%)로 조사되었으며, 농수산업종에서 직영점이 없는 회사는 11개사(78.58%), 1개의 직영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1개사(7.14%), 2개에서 10개까지의 직영점을 가진 회사는 1개사(7.14%), 11개 이상 50개까지의 직영점을 가진 회사는 1개사(7.14%)로 조사되었다.

기타외식업종에서 직영점이 없는 회사는 531개사(60.68%), 1개의 직영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161개사(18.40%), 2개에서 10개까지의 직영점을 가진 회사는 151개사(17.26%), 11개 이상 50개까지의 직영점을 가진 회사는 28개사(3.20%), 51개 이상의 직영점을 가진 회사는 4개사(0.46%)로 조사되었다.

전 업종을 종합하여 보면, 직영점이 없는 회사는 631개사(60.10%), 1개의 직영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184개사(17.52%), 2개에서 10개까지의 직영점을 가진 회사는 185개사(17.62%), 11개 이상 50개까지의 직영점을 가진 회사는 38개사(3.62%), 51개 이상의 직영점을 가진 회사는 12개사(1.14%)로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전체업종에서 95.24%인 1,000개사가 10개 이하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631개사(60.12%)는 직영점을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어 매장을 운영하여 얻을 수 있는 경험 및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체 수입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외식산업 분야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정보공개서 상의 회계변수를 이용하여 자산규모, 재무구조, 수익성, 성장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재무구조에 관한 지표를 산출하고자 하였으며, 정보공개서에 공개된 재무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전체 외식산업 프랜차이즈 본사의 자산규모의 메디안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외식산업 프랜차이즈 본사의 자산규모 중앙값은 675백만 원으로 계산되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675백만 원 미만인 회사의 수는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9.90%인 524개사가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675백만 원 이상의 회사는 526개사(50.10%)로 집계되었다.

이계원(1993)의 선행연구에서 총자산이 작을수록 도산확률이 높아진다는 이론을 적용해 볼 때, 5개 업종 전체 자산규모의 중앙값이 675백만 원인 것은 자산규모가 전반적으로

영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볼 때 외식산업 분야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도산확률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심지어 자산규모 1억 원 미만의 회사 수가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13.43%인 141개사에 이르고 있는 것은 외식산업 프랜차이즈 본사의 도산확률이 매우 높을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자산규모 675백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524개사의 총 누적 자산규모는 전체 기업체의 49.90%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자산규모의 0.4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자산의 영세성에 따른 도산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재무구조에 관하여는 부채비율 200% 기준으로 재무구조를 파악하였으며 부채비율 200% 이하의 회사는 전체 조사대상 기업의 50.00%에 해당하는 525개사로 조사되었으며, 부채비율 200% 이상인 회사는 314개사(29.90%)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전체 외식산업프랜차이즈 본사의 20.10%에 해당되는 211개 업체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자본잠식 회사가 211개사(20.10%)에 이르며, 부채비율이 200%이상인 회사가 314개사(29.90%)에 달하는 것은 프랜차이즈본사의 재무구조의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자본잠식 회사가 계속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익성에 대한 조사 결과 5개 업종의 중앙값이 ROA 4.72%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ROA 4.72%이상인 기업의 경우 수익성이 양호한 것으로, 그 이하는 불량한 것으로 판단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 총1,050개의 회사 중 수익성이 높은 회사가 50.00%인 525개사로 조사되었으며. 수익성이 낮은 회사는 525개사(50.00%)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OA의 중앙값이 4.72%에 불과한 것은 업종전체의 수익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성장성에 대한 조사 결과 5개 업종의 매출증가율 중앙값은 7.57%로 조사되었으며 매출증가율의 중앙값이 7.57%인 것은 전체업종의 매출성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성장률은 대표적인 성숙산업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종합적인 재무지표 분석을 통하여, 자산규모, 재무구조, 수익성 및 성장성 지표가 모두 좋은 회사는 123개사(11.71%), 모두 나쁜 회사는 78개사(7.43%), 849개사(80.86%)가 그 중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프랜차이즈 본사의 자본잠식 비중이 평균 20.1%에 이르고 있으며 자산의 규모가 1억원 미만인 업체도 13.43%인 141개사에 이르는 등 재무구조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재무구조가 열악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 프랜차이즈 영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으며, 아울러 프랜차이즈 본사를 믿고 가맹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가맹희망자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외식분야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프랜차이즈 본사를 창업하기 위한 어떤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누구나 프랜차이즈 본사를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과도한 경쟁의 유발 및 성장성과 수익성이 낮은 업체들이 난립함으로써 그 피해가 가맹점 사업자로 전가될 수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자료를 가맹희망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가맹희망자들이 정확한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가맹본부에서 운영하는 직영점의 경우, 전체 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60.12%가 직영점을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연구개발 및 서비스에 대한 노력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본사의 수익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직영점이 없을 경우, 본사는 프랜차이즈 로열티 및 식자재의 공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상공회의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기업의 약 70%가 로열티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무리한 식자재 유통마진에 의존하거나 영업장의 인테리어 부문 등의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2~3년 만에 인테리어를 무리하게 교체하도록 강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어 이러한 인테리어의 교체 시 본사의 부담을 강제한 상황에서 본사의 수익구조는 더욱 어려워 질 수 있으며, 본사의 직영점 운영으로 가맹희망자들에게 충분히 수익성이 있으며, 본사도 직영점 운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가맹사업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제시되었던 정보공개서를 종합적 기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가맹희망자들이 가맹하고자 하는 브랜드의 재무상태를 종합적으로 비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러한 재무 상태에 관한 분석결과를 지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재무상태가 모니터링 된다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러한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공개된 회계변수의 정보가 매우 적어 최소한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에 이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정보공개서가 모든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자료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최근 영업을 시작한 업체의 경우 자료가 제공될 수 없다는 점, 제공된 자료의 경우에도 최근 자료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아 정확하고 다양한 분석에 활용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전체 재무제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프랜차이즈를 가맹하고자 하는 가맹사업자들에게 정확한 분석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본 연구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간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정보공개서의 공개사항과 그 이용을 촉진을 연구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논문접수일 : 2013.05.20. ● 게재확정일 : 2013.06.18.

### ❖ 참고문헌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2094, 2013. 8. 13, 일부 개정, 시행 2014, 2, 14]  
 공정거래위원회 (20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http://www.ftc.go.kr/laws/laws/lawsLink.jsp>? 2014년 9월 5일 검색
- 김후중 (2008). 개정 가맹사업법 이해와 실무. 서울, 무역경영사.
- 이계원 (1993), 회계정보에 의한 기업부실예측과 시장반응, 회계학연구, 16(1), 49-77
- 이은지, 조철호 (2013).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특성과 가맹점 사업 성과간의 영향에 관한 연구: 정보공개서를 중심으로. 프랜차이즈경영연구, 3(2), 20-38.
- 한길석 (1995), 우리나라 재무분석가의 위험인식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20(1), 29-51
- Adler, J. Y., & Laidhold, M. R. (2010). Assessing Materiality in Franchise Disclosure Documents: A Canada-US Analysis. *Franchise LJ*, 30, 245.
- Altman, E. I., Eom, Y., & Kim, D. W. (1994). Distress Classification of Korean Firms. Available at SSRN 5613.
- Altman, E. I.(1968), Financial Ratios, Discriminant Analysis and the Prediction of Corporate Bankruptcy, *Journal of Finance*, 23(4), 589-609.
- Altman, E. I., Haldeman, R. G., & Narayanan, P. (1977), ZETA Analysis: A New Model to Identify Bankruptcy Risk of Corporations, *Journal of Finance*, 1(1), 29-54.
- Bates, T. (1995). Analysis of Survival Rates Among Franchise and Independent Small Business Startup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3(2), 26-36.
- British Franchise Association (2011), 2011 NatWest/British Franchise Association Survey. 27th Annual Research Study, Vol. 27, British Franchise Association, London.
- Dant, R. P. (1995). Motivation for Franchising: Rhetoric Versus Reality.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14(1), 10-32.
- Drahozal, C. R. (2014). Disclosure of Franchise Disputes (June 4, 2014). *Stanford Journal of Law, Business, and Finance*, Forthcoming. Available at SSRN:

- <http://ssrn.com/abstract=2446064>
- Frazer, L., Weaven, S., & Bodey, K. (2012), *Franchising Australia 2012 Franchising Australia*, Asia-Pacific Centre for Franchising Excellence, Griffith University, Brisbane.
- Gassenheimer, J. B., Baucus, D. B., & Baucus, M. S. (1996). Cooperative Arrangements Among Entrepreneurs: An Analysis of Opportunism and Communication in Franchise Structur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36(1), 67-79.
- Lafontaine, F., & Shaw, K. L. (1999). The Dynamics of Franchise Contracting: Evidence From Panel Data.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7(5), 1041-1080.
- Lowell, H. B. (1992). Comments on Federal Franchise Disclosure and Relationship Bills. *Franchise Law Journal*, 10-12.
- Meiklejohn, A. M. (2008). Redressing Harm Caused by Misleading Franchise Disclosure: A Role for the Uniform Commercial Code. *Entrepreneurial Bus. LJ*, 3, 435.
- Ohlson, J. A. (1980). Financial Ratios and the Probabilistic Prediction of Bankruptc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18(1), 109-131
- Peters, L. (2000). Draft UNIDROIT Model Franchise Disclosure Law and the Move towards National Legislation, *The Unif. L. Rev.* ns, 5, 717.
- Peters, L. (2000). UNIDROIT Prepares A Model Franchise Disclosure Law. *Bus. L. Int'l*, 279.
- Peters, L. (2004). Franchising: Recent Legislation and the UNIDROIT Model Franchise Disclosure Law. *Bus. L. Int'l*, 5, 33.
- Pitegoff, T. M. (1989). Franchise Relationship Laws: A Minefield for Franchisors. *The Business Lawyer*, 45(1), 289-331.
- Rudnick, L. & Ginsburg, D. H. (1974). The Illinois Franchise Disclosure Act. *Ill. Bar. J.*, 62, 256.
- Shane, S. A. (1998). Research Notes and Communications: Making New Franchise Systems Work.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9(7), 697-707.
- Spandorf, R. S., & Tremaine, D. W. Avoiding the Accidental Franchise: Best Practices for Structuring Licenses or Distribution Agreements. <http://media.straffordpub.com/products/avoiding-the-accidental-franchise-best-practices-for-structuring-licenses-or-distribution-agreements-2014-04-16/reference-materials-spandorf.pdf>
- Stadfeld, S. (1979). FTC Franchise Disclosure Rule and Its Impact on Chapter 93A of the Massachusetts General Laws-A Source of Protection for Consumer Entrepreneurs, *The. W. New Eng. L. Rev.*, 2, 681.
- Weaven, S., Frazer, L., & Giddings, J. (2010), *New Perspectives on the Causes of*

Franchising Conflict in Australia. *Asia Pacific Journal of Marketing and Logistics*, 22(2), 135-155.

Wright, O., & Winzar, H. (2014). Franchise System Investment Disclosure: Signaling Value to Prospective Franchisees. *Asia Pacific Journal of Marketing and Logistics*, 26(3), 365-377.

# **A Study of Financial Structure, Profitability, Growth and Financial Risk of Food Service Franchisor**

**Hoang-Taig Choi\***

## **ABSTRACT**

This study provides the information about size, financial structure, profitability and growth of franchisors using financial data(asset, liability, equity, sales volume, operating income and net income) in uniform franchise offering circular of fair trade commissio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050 franchisors in various business fields: fast food, family restaurant, bakery, agriculture & fishery and liquor shop in the uniform franchise offering circular in 2012 and 2011.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or company size, median of total assets was KRW 675 million and the accumulated median assets rate was 0.48%, but the accumulated median company numbers were 49.9%, which showed small size. For financial structure, 525 companies were below 200% debt ratio, while 314 (29.9%) companies were in over 200% debt, and 211 (20.1%) companies were impaired in capital. These also showed financial structure was vulnerable. For profitability, median of ROA for total companies were only 4.72%, which showed low profitability. For growth, median of growth rate for sales were 7.57% per year, which showed mature industry. In overall, the results showed franchisors should improve their financial status.

Key words: Franchise Business, Asset Size, Financial Structure, Profitability, Growth rate

---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and Tax, Sejong Cyber University (e-mail: [12bhag@naver.com](mailto:12bhag@naver.com))